

AWENOR

공개란

소수 합격 요소	
수정 횟수 및 사항	

[Blue Echo]

“ 어, 엄마. 저 여전히 무서워요….”

[이름]

유진 애셔하일 / Eugene Asherhail

성별	나이	국적	혈통	신장
----	----	----	----	----

남성	14세 4학년	영국인	머글본	129cm / 26kg
----	---------	-----	-----	--------------

[외관]



빵꾸 님 커미션, 사진 클릭 시 링크 이동.

[지팡이]

서양물푸레나무 / 용의심근 / 12인치 / 단단함

[성격]

심해 밀물 표류

애써하일은 여전히 빠져들었다. 한 치도 그리워한 적 없던, 그 젓빛 푸름의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자의가 아닌 온전한 빠져들 沈潛 이었음이라. 매섭게도 밀려오는 파도는 제 온 몸에 물을 묻힌다. 속절없이 스며드는 물결은 그대로 제 자신을 씻겨낸다.

눈을 떠보니 그는 어느새 그가 *미워*하는 파도와 닮아있었으며 파도는 그를, 그는 파도를 닮아갔다. 좋은 일일까. 애써하일은 그저 매섭게 다가오는 파도를 맞이하며 입을 다물 뿐이었다. 어쨌거나 파도는 제 침묵을 묵인해 주었으니.

여전히 그는 겁이 많았고, 밀려오는 파도에 속절없이 겁이 나 그대로 도망친다. 그것이 애써하일이었다.

[특징]

1979년, 7월 8일 브라이언트 출생. 위로 형제 1명을 두어 평범한 유년기를 해안가 근처에서 보냈다. 좋아하는 것은 해양생물, 축축하게 젖어든 모래. 싫어하는 것은 여전히 바다. 그리고 당근양파버섯파프리카피망... 어쩌다가 육지의 것에 좋든 싫든 간에 정을 두게 되었다.

바다는 온전히 푸르름일까. 무조건 바다가 푸르게 빛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 없지 않나. 수면 아래에서의 푸르름은 온전히 무상無常일 터인데. 그는 그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여전히 사회성 제로. 바다에 제 자신을 보러 온 친구들에게도 문전박대. 학교 생활은 불성실(하지만 노력은 했다). 좋아하는 것 분명, 싫어하는 것도 분명. 여전히 애써하일이고, 변화는 없었다.

말아지는 온전한 체취는 짠 맛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포근하여 오묘한 인상을 준다. 전에는 미끌미끌했다면 지금은 산뜻한 정도. 육지에 너무 오래 머물었으니 그새 스며들 만도 했다.

ETC

방학 동안 물고기를 키웠다. 그리고 사흘 밤내를 울었다.

선호 대화 주제: 바다, 해양생물.

폐급

[스탯]

체력 5

근력 3

마법 2

지능 1

민첩 1

행운 5

총합: $5+3+2+1+1+5=17$
